

삼국시대 불피운 흔적 나왔다

완주군, 탄현봉수 발굴 조사서
원통형 석축시설 · 적석유구 확인
"학술적 가치 매우 높아" 주목

완주 탄현봉수 발굴조사에서 원통형의 석축시설과 불 피운 흔적이 남은 적석유구가 확인돼 학술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완주군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 선사고대문화의 역사재조명 사업으로 추진한 완주 탄현봉수 발굴조사 결과에서 원통형의 석축시설과 불 피운 흔적이 남은 적석유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2018년 8월부터 탄현봉수의 형태 및 구조와 규모, 축조시기 등을 밝히기 위해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수행했다.

조사 결과, 탄현 봉수의 석축시설은 자연 암반 위에 장방형 판석을 사용해 축조했고, 규모는 하단부 직경 840cm, 상단부 직경 750cm 내외이며, 잔존높이는 365cm다.

전체적 형태는 원통형이나 기초부 일부가 방형을 띠고, 축조과정에서 삼국시대 기와편과 토기편이 유입된 점으로 보아 개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석축시설에서 남쪽으로 32m 가량 떨어진 산줄기의 정상부에서 불을 피우거나 관리하였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가 확인됐다.

조사기관은 탄현봉수가 삼국시대에 축조 및 운영된 것으로 밝혀진 완주군 최초의 사례로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완주 탄현봉수 발굴조사에서 원통형의 석축시설과 불 피운 흔적이 남은 적석유구가 확인돼 학술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봉수 형태의 변화가 당시 백제와 가야 세력의 운영 주체 변화를 반영하는 지는 향후 동일 봉수로 상에 분포하는 불명산봉수, 성재산봉수 등의 조사를 통한 삼국시대 국방체계연구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탄현봉수는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숲고개(탄현)의 서쪽(해발 457.4m)에 위치하며,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잘 남아있다.

탄현봉수의 남서쪽에는 용계산성, 북동쪽에는 탄현산성(고종리산성 혹은 산북리산성)이 있어 이 일대가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임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화산면과 경천면 일대에서 수락봉수, 성재산봉수, 불명산봉수 등이 확인

돼 완주군 소재 봉수의 운영주체와 시기에 대한 학술적 주목을 끌고 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은 "역사적 재조명 차원에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완주군 지역 역사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향후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정비에 위해 시급히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민선7기 동안 지역 내 마한·백제문화와 가야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추진해 지역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기자

공연 & 전시

정음시립농악단 2018 '전통연희 잔치' 특별공연

20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

농악·탈춤·판소리 등 한마당

2018년 정음시립농악단 특별공연 '전통연희(演戲) 잔치'가 오는 20일 오후 7시에 연지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전통연희는 예능의 한 갈래로 관객들을 대상으로 농악, 탈춤, 남사당놀이, 판소리 등을 공연하는 것으로 정음시립농악단의 색다른 예술적 기량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모듬북으로 시작하여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풍류, 징, 장구, 북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연주자들의 개인 기량을 엿볼 수 있는 판 굿이 공연 된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17호 봉산탈춤 중 제5과장인 사지춤과 중요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 중 하나인 비나놀이도 볼 수 있다

유진섭 정음시장장은 "유례없는 폭염과 때 늦은 장마로 시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없었다"며 "이번 특별 공연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흥이 되살아나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음시립농악단은 1991년 창단되어 호남우도농악의 뿌리인 정음농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본 및 전주 등 국내외 초청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30여 차례의 찾아가는 농악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정음의 대표적 전통문화예술인 농악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도 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6주연속 왕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차트 3파전

백세희·야쿠마루 가쿠·유발 하라리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6주 연속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달렸다. 9월5~11일 차트에서 야쿠마루 가쿠의 '볼이킬 수 없는 약속'과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따돌렸다.

정재승의 '열두 발자국', 인생명언집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히가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100만 부 기념 특별 한정판),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등 상위권 인기 도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공지영의 '해리' 1권은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해 14위다. 글베우의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가 출간과 함께 18위에 쏠렸다.

인터파크도서 9월 6~12일 차트에서는 '볼이킬 수 없는 약속'이 6주 연속 1위에 이름을 걸었다. 2위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3위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쓴 '초



격차'는 출간과 동시에 8위에 올랐다. 일본 추리소설 거장 히가시노 게이코의 '살인의 문 1·2'는 출간 즉시 9위에 랭크됐다. /뉴시스

세계기록유산 활용지원 범위 확대

문화재청 내년부터 지자체 대상
사업계획 공모 예산 지원키로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까지 활용 홍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장 기관과 관련 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사업계획'을 공모해 내년에 지원할 세계기록유산 활용과 홍보 사업을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활용 홍보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 그 지원 범위를 넓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활용과 홍보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하

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총 16건을 보유하고 있다. 1996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2001년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6년 뒤인 2007년 조선왕조세과의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을 등재한 이후 2017년까지 2년 간격으로 꾸준히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해왔다. 2009년에는 동의보감, 2001년 일성록과 5·18 관련 기록물, 2013년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등이 등재됐다. 지난해에는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제보상운동기록, 조선통신사기록물 등 가장 많은 한국 기록 유물이 세계 유산이 됐다.

문화재청은 기록유산 활용과 홍보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록유산과 기록문화 인지도를 높이고, 널리 활용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기록유산은 인류 모두의 것이며 완전히 보호되고 보존돼야 하고 공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